

음악영화 후예들 '보헤미안 랩소디' 신드롬 이을까



'보헤미안 랩소디'로 음악영화 전성시대가 시작된 가운데 '스윙키즈' '어거스트 러쉬' '트와이스랜드' 등 각기 다른 음악 소재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과연 이 영화들은 '보헤미안 랩소디'의 열기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

'스윙키즈' '어거스트 러쉬' '트와이스랜드' 등은 이런 뜨거운 분위기에 차기 음악영화로 주목 받고 있다. '스윙키즈'는 거제포루수용소에서 국적·언어·이념 모든 것이 다른 멤버들이 함께 모여 탭댄스팀을

겨울 공략 '스윙키즈'부터 '트와이스랜드'까지 3색 음악 소재 영화들 명곡·히트곡으로 공략

결성해 무대에 서기까지 이야기를 그린다. 총 대신 춤을 무기로 하나 된 이들의 이야기가 강형철 감독 특유의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로 펼쳐질 예정이다. 배우 도경수·박혜수·오정세 등 검증된 연기력을 가진 캐스팅 조합은 물론이고 경쾌한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탭댄스의 세계가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감을 더한다. 국내 최초로 비틀즈 음악을 영화에 삽입하는 등 탭댄스와 함께 불후의 명곡을 만날 수 있다. 포루수용소와 탭댄스라는 이질적인 두 요소를 잘 섞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재개봉하는 '어거스트 러쉬'는 개봉 당시 2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모든 소리를 음악으로 만드는 천재소년 에반은 자신의 진짜 부모님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평범

한 가족 드라마가 될 수도 있었지만 '어거스트 러쉬'는 음악으로 특별해졌다. 록·클래식·포크 등 다양한 장르 음악들이 한데 섞여 가족을 만나도록 하는 매개가 됐고 따뜻한 감동에 시너지를 더했다. 현대적인 도시 뉴욕을 가득 메우는 세 사람의 선율이 가족 드라마와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인기 그룹 트와이스는 영화 '트와이스랜드'로 극장가에 출격한다. 데뷔 3주년을 기념해 콘서트 실황과 그 뒷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이미 방탄소년단의 '번 더 스테이지: 더 무비'가 30만 관객을 돌파하며 성공을 거둔 만큼 트와이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와이스랜드'에는 두 번째 투어 '트와이스랜드 존 2: 판타지파크(TWICELAND ZONE 2: FANTASY PARK)'의 현장감 넘치는 무대와 함께 멤버들의 다양한 에피소드가 가득하다. 대중에게 폭넓게 사랑받는 트와이스의 음악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생동감 있게 콘서트 실황을 담아 내 다른 음악 영화들과는 달리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무대를 즐길 수 있다. 한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이들 영화에 대해 "한국 관객들이 원래 음악 요소가 영화에 들어가면 좋아한다. '보헤미안 랩소디'가 잘 됐으니 거기에서 감동을 받은 이들이 '스윙키즈' 등 음악영화를 보면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트와이스랜드'를 제외하면 결국 드라마가 중심이고 음악은 이야기를 빛내주기 위한 장치로 쓰이지만, 명곡이나 히트곡을 듣는 관객들에게는 만족감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나쁜형사', 리메이크 우려 한 방에 날려



드라마 '나쁜 형사'가 단 한 회 만에 리메이크작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리메이크작들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나쁜 형사'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첫 회에서 폭발적인 반응과 호평을 이끌어냈다.

MBC 월화드라마 '나쁜 형사'(극본 허준우 감독, 연출 김대진 이동현)는 연쇄 살인마보다 더 나쁜 형사와 매혹적인 천재 여성 사이코패스의 위험한 공조 수사를 그린다. 특히 이 드라마는 영국 BBC 인기 드라마 '루터(Luther)'를 리메이크한 범죄 드라마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원작이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리메이크작 '나쁜 형사'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던 것과 동시에 우려도 있었다. 앞서 '나쁜 형사'의 김대진 PD는 "리메이크를 처음 해봤는데 진짜 쉽지않은 많은 작업이었다. 조인을 준 많은 분들이 '박상 하시게 되면 원작을 왜 샀지' 싶다고 하더라. 결과적으로는 원작을 생각하지 말고 새로 했다. 원작에 대해서는 잊고 우리만의 드라마를 만들자고 논의했다. 많은 에피소드를 차용은 했지만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많이 바꿨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나쁜 형사'는 시상파에서 9년 만에 19급 등급으로 판정된 드라마로, 지상파 드라마로는

이 시청률들이 헨디캡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작진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전이었다.

그런데 막상 무경을 열어보니 반응은 뜨거웠다. 폭발적이라는 반응이 더 맞는 듯하다. 최근 지상파 드라마들이 케이블 드라마들에 밀려 도를 힘을 쓰지 못하고 시청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화제성이 낮아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나쁜 형사'는 시청률은 물론이고 화제성 또한 높다. 지난 3일 1회는 7.1%(닐슨코리아, 전국방송가구 기준), 2회는 8.3%를 기록했다. 전작 '베드파파 1회'가 3.1%를 기록한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올해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첫 회 시청률을 보면 '나쁜 형사' 첫 회 시청률이 2배 정도 높다. '사생결단 로맨스' 4.1%, '검법남녀' 4.5%, '위대한 유혹자' 3.6%, '투깝스' 4.6%를 나타냈다. 수목드라마 성적 또한 좋지 않았다. '나쁜 형사'가 MBC 드라마 잔혹사를 끊어냈다.

이뿐 아니라 동시간대 드라마 중 압도적인 시청률로 1위를 기록했다. SBS '사이언스'는 5.6%, KBS 2TV '맨보이즈'는 3.5%를 기록했다.

'나쁜 형사'가 첫 방송부터 시청률 1위를 차지한 데는 배우들의 연기와 연출 스토리 3박자가 모두 완벽하게 떨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믿고 보는 배우' 신하균의 미(美)진 연기와 탄탄한 전개, 섬세한 연출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또한 19급 시청등급이기 때문에 표현의 한계가 높지 않았던 것도 이유가 될 듯하다.

2018 음원차트, YG로 시작해 YG로 끝나다



아이콘, 블랙핑크에 이어 제니와 송민호까지 YG 아티스트들이 2018년 음원차트를 정복했다.

2018년 상반기를 휩쓴 아이콘 블랙핑크, 그리고 솔로로 출격해 하반기를 점령한 블랙핑크 제니와 위너 송민호까지, YG 아티스트들의 음원 정상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YG의 음원 꽃길은 연 것은 아이콘이다. 아이콘은 '사랑을 했다'로 지난해 11월 발매된 '사랑을 했다'는 공개 이후 무려 43일간 음원차트 1위를 지켰다. 이는 최근 3년간 보이그룹 사상 최장 1위를 기록한 것. 2018년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이 '사랑을 했다'라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름 음원차트 정상은 블랙핑크가 장식했다. 블랙핑크는 '뚜두뚜두'로 컴백, 무려 29일간 음원차트 1위를 지켰다. 대형 가수들이 연이어 컴백하는 여름 가요계에서 거둔 의미있는 신기록이었다.

특히 블랙핑크는 '뚜두뚜두'로

생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올해 최고의 히트곡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아이콘은 '사랑을 했다'로 지난 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18 멜론뮤직어워드'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베스트송상을 수상했다. 아이콘은 '사랑을 했다'로 지난 2015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토했다. 지난 11월 발매된 '사랑을 했다'는 공개 이후 무려 43일간 음원차트 1위를 지켰다. 이는 최근 3년간 보이그룹 사상 최장 1위를 기록한 것. 2018년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이 '사랑을 했다'라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름 음원차트 정상은 블랙핑크가 장식했다. 블랙핑크는 '뚜두뚜두'로 컴백, 무려 29일간 음원차트 1위를 지켰다. 대형 가수들이 연이어 컴백하는 여름 가요계에서 거둔 의미있는 신기록이었다.

특히 블랙핑크는 '뚜두뚜두'로

글로벌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뚜두뚜두'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공개 6시간 만에 1천만 뷰를 돌파했고, 매 천만 뷰마다 K팝 걸그룹 최단 기록을 모두 경신했다. 또한 1억 5천만 뷰부터는 보이그룹까지 통틀어 최단 기록을 연이어 경신했다. 2억뷰는 K팝 최단 기록을 무려 11일이나 앞장진 33일 만에 넘었고, 3억뷰는 앞선 K팝 그룹의 기록을 무려 100일 가까이 앞장졌다. 세계 모든 가수를 대상으로 한 기록에서도 유튜브 공개 기준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 역대 2위에 올랐다. '뚜두뚜두'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정상에 우뚝 선 블랙핑크의 '역대급 행보'다.

하반기에도 YG의 열일은 계속됐다. 팀 활동에 이어 블랙핑크의 솔로 첫 주자로 나선 제니는 생애 첫 솔로곡 '솔로(SOLO)'로 음원차트를 올킬했다. 공개 직후부터 음원차트 1위를 싹쓸이한 제니는 전집테라 불려도 모자란 11월 가요계에서 정상 행진을 이어갔다. 제니의 음원 올킬은 무려 14일째 이어졌다. 음원 강자들과 대형 가수들의 컴백 공세

속에서도 제니는 '솔로'로 차트 정상을 지키며 11월 가요계의 진정한 '위너'로 등극했다.

12월 YG의 음원 파위는 계속된다. '갯제니'의 위업을 과시한 제니의 비행을 이어받아 송민호가 솔로로 가요계에 출격, 음원차트를 휩쓸고 있는 것. 첫 정규 솔로 앨범 'XX'를 발표하고 타이틀곡 '아나네'로 솔로 활동에 돌입한 송민호는 '아나네'로 9일째 음원차트 정상을 수성하고 있다.

'아나네'는 70년대 인기 가요인 '소양강 처녀'와 힙합을 접목시킨 이른바 '뽕힙합'. '쇼미더머니'를 통해 발표된 '꼬', MOBB '뽕' 등으로 위너와는 또 다른 솔로의 세계를 차근차근 쌓아온 송민호는 첫 솔로 앨범 'XX'로 위너 송민호와는 또 다른 솔로 아티스트 송민호의 지력을 입증했다. '아나네'는 국내 음원 차트에서 9일째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16개국 아이튠즈 앨범차트, 9개국 송 차트 1위까지 거머쥐며 글로벌 인기를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2018년 음원차트의 시작과 끝은 곧 YG다. 2018년을 명실상부한 YG의 해라 불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다.

'시골경찰', 더 깊어진 전문성 더 깊어진 힐링

네 번째 시즌을 맞이한 '시골경찰'이 더 깊어진 전문성과 더 깊어진 힐링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MBC에브리원 '시골경찰'은 연예인들이 직접 관할 내 치안센터의 순경으로 생활하며 모든 민원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그린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전복 진

안에서 시작한 '시골경찰'은 경북 영주, 울릉도를 거쳐 강원도 정선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민원을 해결하며 이야기를 그려가고 있다.

'시골경찰'은 지금까지 있었던 직업 체험 예능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멤버들은 경찰로 직접 임명을 받고 관할 내 치안센터 순경들과 멘토 멘티로 짝을 맞춰 순찰하

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진짜 경찰 업무를 보고 있다. 촬영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이 시간 동안은 연예인이 아닌 진짜 경찰이다.

시작부터 전문적이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열정과 노력으로 전문성을 체우고,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업무를 익혔다.

'시골경찰'의 열정이 모여면서 시너지가 났다. 신선준과 오대환은 신입순경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줬다. 이철

아, 강경준 등 신입순경은 그들을 보고 빠르게 노하우를 익히고 업무에 적응했다.

'시골경찰'은 이처럼 시즌이 진행될수록 점점 높아지는 전문성과 깊어지는 힐링으로 진정성을 높이고 있다. 폭발적인 시청률과 화제성은 아니지만 천천히 걸어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시골경찰'의 느리면서도 아름다운 발걸음이 응원과 사랑이 모이는 이유다.

오늘의 운세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음력 10월 28일)



▶**띠** 어두운 길은 혼자보다 둘이 가는 것이 나은 것처럼 5, 7, 9, 11월생은 어려운 문제를 토끼, 닭, 말띠와 함께할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 그, 모, 사 성씨는 구상하는 일이 있으면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자신의 길을 개척하라.



▶**띠** L, O, X 성씨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매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상식선에서 일해야만 무리가 없다. 너무 내 입장만 고수하지 말라. 7, 8, 9월생은 노란색을 피할 것.



▶**띠** 6, 7, 8, 9월생은 어려울 때 같이 지낸 사람을 형편이 좋아졌다고 해서 외면하면 안 된다. 울생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개구리가 되면 비겁한 자다. 모든 사람에게 잘할 필요는 없다. 나를 알아주는 몇 사람에게만 잘해도 된다. 서쪽이 길.



▶**띠** 2, 4, 6, 9월생은 남의 눈을 신경 쓰지 말고 소리대로 행하면 어떤 부정도 물리칠 수 있다. 내가 도울 사람이 생기면 용기 있게 도와주라. 부린 만큼 거두는 법이니 상대도 내가 어려울 때 도움 준다. 그, 모, 사 성씨는 목돈이 들어오는 날.



▶**띠** 마음을 비우고 임하면 2, 4, 7, 8월생은 더는 실패하지 않겠다. 매사 일이 난관에 부딪히는 것은 내 허욕 탐임을 인정할 것. 사람을 속이고 일어서는 것은 나쁜 행위이니 지나친 욕심을 삼가고 사람을 만나라.



▶**띠**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하고 배우자가 하는 일은 무조건 부정하게 봐서는 안 된다. 1, 9, 10, 11월생은 행한 대로 가정에 평안함이 오는 법이다. 배우자를 원망하기에 앞서 화합을 유지하는 데 신경 쓰라.



▶**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2, 3, 6, 7월생은 매사 좌절하지 말고 용기 내라. 현재 상황에서 좀 더 뒤로 물러나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면 길이 보일 것이다. L, X, H 성씨는 주변 협조가 절대적임을 알려. 독단은 금물이다.



▶**띠** 내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할 사람이 생기니 조심하라. 1, 3, 6, 10월생은 서, 북쪽 친족 탓에 신경 쓸 일이 많겠다. 나에게 대한 소문이 엉뚱하게 나 마음 고생 할 듯. L, 모, X 성씨는 태만할수록 난관에 봉착하니 주의할 것.



▶**띠** 1, 2, 6, 10월생은 믿었던 사람이 변심한 사실만 탓하지 말고 내 성격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돌아보고 있다면 고지라. 그, X, H 성씨는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형제, 자매로 인해 마음고생 하겠으니 지혜롭게 대처하라.



▶**띠** 많은 일을 한꺼번에 다 생각하다 보면 신경성 노이로제에 걸릴 우려가 있다. 1, 2, 3월생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을 삼가고 휴식하는 것이 좋을 듯. 검은색 옷을 입지 말라. L, O, X 성씨는 남이 하지 못하는 일에 도전하라. 큰 성과가 있다.



▶**띠** 2, 7, 9, 10월생은 매사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만 없애면 뜻한 바를 기한 내에 이를 능력이 있다. 내 잠재력을 믿어 보라. 인생은 남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다. L, O, X 성씨는 사람을 사귀는 데 분명한 선을 긋고 만나는 것이 좋을 듯.



▶**띠** 2, 5, 7, 10월생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좋다. 더 큰 욕심을 부리면 불행은 초래한다. 그, 모, H 성씨는 가정 불화가 어디부터 잘못돼 시작한 것인지 돌아보라. 원인만 알면 반복하는 싸움을 막을 수 있다. 운전 조심.